

★ MEET 연계(2) - 수록 101 ★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은 ‘이단을 물리친다’는 입장에서 도가 사상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한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에 대한 주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율곡 이이는, 이론적 고원(高遠)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자』에 담긴 수신적 덕목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자』가 유학의 체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서명응이 『노자』의 비움과 낮춤의 도리를 양생(養生)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하고, 홍석주가 마음 수양법으로 수정(守靜)과 과욕(寡欲)에 주목하여 양생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은 이이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자의 본의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곡해하여 『노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명응이 『장자』 내용의 황당함을 거론하여 『노자』와 차별화하고, 홍석주가 노자와 도가를 구별하면서 장자가 유학의 도를 비난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도가서 주석가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박세당이다. 그는 노자 사상이 성인의 도(道)는 아니지만 그 사상을 배척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세간에서 읽고 있는 『노자』를 성인의 가르침 속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보며, 『노자』의 올바른 해석을 학문적 과제로 삼았다. 그는 겸허의 처세술을 노자의 장점으로 파악하고, ‘무(無), 무위(無爲)’ 등을 유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장차 빼앗으려거든 반드시 주어라’라는 말은 권모(權謀)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명(功名)과 이익에 머무르지 않는다’도 결국 공명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비판적 입장도 제시하였다.

한편, 박세당은 당시까지 장자 사상의 근본 성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를 주해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장자가 제자(諸子) 가운데 공자를 제대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자』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고전이라고 보고, 장자가 유학의 윤리 강상을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세계와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였다.

‘친유가적 장자’로의 전환을 꾀했던 그의 『장자』 이해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제물론」의 ‘성심(成心)’을 장자의 본의와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장자는 본래 ‘성심’을 구성된 마음, 즉 피아간의 시비를 일으키는 선입견으로 파악하고, ‘성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심’이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태나 타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면, 그 결과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상호 대립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시비 대립이 결국 허구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조의 태도를 통해 시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세당은 ‘성심’을 하늘에 정해진 이치가 나에게 부여된 것, 즉 인간에게 내재한 보편적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고, 이것에 따른 인식과 판단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시비 대립이 해소됨은 물론 인식의 동

질성도 확보된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객관적 시비 판단을 통해 합리적 정치 행위의 실천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박세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자 사상과 유학의 친근성을 긍정하고자 『노자』의 반유학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그 의미를 적절히 약화하여 주해한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의 태도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도가서 주석가들과 함께 그의 해석은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이 보수적 폐쇄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른 사상에 대해 포용성을 넓혀 갔다는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의 실제적 효용성보다 이론적 체계성에 주목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 ② 도가서 주석가들은 노자 사상을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의 범위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 ③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근본 취지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 주었다.
- ④ 조선 중기에는 도가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무조건 배척과는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
- ⑤ 도가서 주석가들은 유학과 노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은폐하여 유학과 노자 사상의 사상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12. 『노자』와 『장자』에 대한 박세당의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노자』가 비록 성인의 도는 아니지만 그 책이 세상에 이미 통행하고 있으니,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음 세상을 거둬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 ㄴ. 도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예(禮)로써 공명을 도모하고, 항상 치도(治道)를 말하나 수기에 근본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자가 꺼려서 멀리한 것이다.
- ㄷ. 장자는 노자를 조종(祖宗)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자의 학문은 세상에 나와서 대응하고자 하는데, 장자는 이와 같지 않다.
- ㄹ. 공자가 존송되어야 하는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던 자로는 장자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장자』의 언외(言外)의 의미도 궁구해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자는 제한적 인식에 따른 시비 판단은 허구성을 수반한다고 본다.
- ②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을 인식 주체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한다.
- ③ 장자는 시비 대립의 원인인 선입견이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객관화된다고 본다.
- ④ 박세당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의 근원적 설정이 시비 대립을 해소한다고 본다.
- ⑤ 박세당은 시비 대립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과 연관하여 파악한다.